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휴가기간 모든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필요한 요소 <85.7.28>

날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그래서 휴식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휴식에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도록 하는 밝을 흠이 있어야 합니다.
 햇볕을 막아 주는 나무 그늘이 있어야 합니다.
 발을 담그고 몸을 적시는 물이 있어야 생기를 회복합니다.
 시원한 바람은 열기를 식혀주고, 들판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우주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벌레들을 보면서 생태계의 조화와 낙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휴식을 취해도 여전히 피곤하고 영적 감각이 무딘 것은,
 휴식에 필요한 요소들을 잃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휴식은, 휴식에 필요한 요소들을 채우며 갖는 휴식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용신 장로 · 진정행 권사 가정 (감사)
 나송주 집사 · 이윤희 권사 가정 (감사)

주인 교회 순화관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인정부원 6명 출구 영풍문고 앞
 강단을 꽃으로 : 이종옥 집사 (엄마 기일)

박무상 집사 (생일 감사)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32 호
 2023년 8월 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쉽, 필요한 시간

폭폭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마치 목욕탕의 사우나를 연상케 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는 발의 잡초들도 잎을 아래로 축~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옛 가요 중 칠갑산의 가사 내용에 이쯤을 나타내는 듯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 구절은 '콩밭 메는 아낙네야 베적삼이 흠뻑 젖는다'라는 구절입니다. 콩밭은 여름에 쑥쑥 자라기 때문에 우거진 고랑 사이에 들어가서 풀을 메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이 됩니다. 베적삼은 베로 지은 훌저고리로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무더운 여름 베적삼을 입고도 땀을 흠뻑 젖는 아낙네의 설움을 이야기 하는 노래입니다.

10여년 전에 여름 공동체생활 기간 중에 콩밭의 풀을 메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이사랑방으로 기억하는데 여름 공동체 기간에 활동으로 풀베기를 하면서 더운 퇴약벌에서 한 시간 남짓 풀을 뽑고 난 후에 물총 싸움을 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밭에는 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게으름을 조금만이라도 피우자면 밭에 심어놓은 식물보다 잡초들이 더 우거져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밭일을 할 때면 뜨거운 햇빛과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작업 중에 쉬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는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줄 압니다. 이 때 주위에 나무가 있다면 그 그늘에서 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농촌에서는 이 시간에 새참이라고 부르는 간식을 먹습니다.

쉽다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쉬(休)자를 씁니다. 이 한자는 나무 목(木)자와 사람 인(人)자가 합쳐진 글자로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쉬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멈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든 시기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 중동에서 일을 했던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꿈을 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한국인의 부지런함은 지금의 국력을 갖게 하는 기반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놀 때도 계획을 짜서 전투적으로 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처럼 쉬는 것이니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쉬를 즐기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망중환(忙中閑)을 보내기도 하며 저녁에는 잠을 자면서 쉬를 가집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마지막이 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삶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긴 시간 휴가를 가지 못할 수도 있으나 사람은 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쉬를 가질 때 주로 계곡이나 산, 바다 등 자연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드셨던 자연의 편안함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바쁜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한주간 말씀

“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

< 로마서 8장 3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63 264 / 356

기도 :

성경 : 로마서 7장

제목 : 구원받은 자의 율법 이해

1-6 율법의 영향

해석: 율법을 지키는 것은 두려움, 걱정,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로 인하여 다시 사는 것으로 자유, 기쁨,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적용: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자.

기쁨과 적극적으로 섬기자.

7-12 율법의 본질

해석: 내가 죽으면 거룩, 의, 선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적용: 율법의 역할을 바로 알자.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을 앞세우지 말자.

13-25 구원받은 자의 율법 이해

해석: 율법은 한계를 알게 한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균형이 필요하다.

적용: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

공주로 가는 길

난생 처음 충남 공주에 갔다. 그곳에서 책에서만 보던 무령왕릉도
처음 방문했다. 삼국시대 고분 중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왕릉이라는 무령왕릉은 1500년 전 백제 왕실의 자취가 깃든 곳이다.
일본산 금송으로 만든 목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석수(진묘수), 태국
및 인도와의 교류 흔적이 담긴 장신구 등을 감상하며 백제의 웅진 시
절로 시간 여행을 다녀왔다. 특히 돼지 체형에 뿔과 날개가 달린 돌
집승인 진묘수가 눈길을 끌었다.

올해 여름공동체생활 중에는 1박 2일의 방별 공동체생활이 포함됐
다. 우리 비움사랑방은 채영대 집사님, 장지영 권사님이 살고 계신 공
주로 방 공동체생활을 다녀왔다. 그동안 같은 방 식구로서 식사 한번
같이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을 시원하게 털어낼 수 있었다.
여름휴가 기간이라 서울에 사는 방 식구들은 금요일 일찍부터 공주를
향해 출발했다. 처음 방문지는 국립공주박물관이었다.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자 여름 무더위를 달랠 수 있어 좋았다. 새벽에 서울에서 출발
하신 홍삼성 장로님 일행은 이미 부여 궁남지에 들러서 연못과 연꽃
을 구경하고 오셨다. 박물관을 함께 둘러본 뒤 박물관 앞에서 진묘수
석상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박물관과 무령왕릉에서는 채
영대 집사님이 '현지 가이드'로서 해설도 해주셨다.

채영대 집사님 댁은 계룡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었다. 다락방이 있
는 아담한 집엔 잘 정리된 잔디밭에 각종 묘목이 심어져 아름다운 정
원이 갖춰져 있었다. 두 분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눈에 현했다. 방
공동체생활의 하이라이트는 채 집사님 댁에서 준비하신 숯불 바비큐
였다. 임명숙 권사님께서 “무더위에 웬 바비큐냐”고 걱정하셨지만, 해
가 기운 뒤 피운 숯불에 잘 구워진 고기는 모두가 만족해했다. 이후
찬양과 말씀, 그리고 피드백이 이어졌다. 특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른 찬양은 모두에게 은혜로웠다. 정말 오랜만에 목청껏 찬양했는데,
몇몇 분의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다.

휴가철에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공주를 오가며 피곤하기도 했지
만, 우리 방 식구들의 신앙 연륜과 따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방 공동체생활이 이번 여름공동체생활의 백미였다. 흔쾌히 처소를 내
어주신 채영대 집사님, 장지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비움사랑방 이충환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100 : 1-3
220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이사야서 57 : 15

390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로마서 8 : 35 - 39
397 그루터기사랑방
“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 ”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19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홍삼성 임명숙/ 봉헌위원 : 정낙귀/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의 기초를 더욱 바르게 세우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8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희망이 없었지만,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렸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받은 은혜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언제나 당당하였으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자족하며 주님을 찬양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은 단단한 반석과 같아 분주하든 여유가 있든 상관없이 참된 쉼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립시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 마음속의 불안을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이 은혜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굳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초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최연우 집사

<4학년 해외문화체험 후기>

2달 동안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운 시간이었다. 미국에서의 많은 경험은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었고, 나의 꿈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였고,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었다. 내가 생각했던 현실과 결과는 달랐지만 그 속에서 감사와 목표와 희망을 얻었다. 미국은 거대하고 다녀와서 느낀 이야기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이 쏟아져 내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미국에 익숙해지면서 어떤 것을 내가 배우고 내가 얻어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던 것 같다.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부족한 점도 있었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많은 점들이 미국에서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느껴지지 시작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점차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엄청난 것을 보고 왔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과 도와주신 부모님, 선생님, Mr. and Mrs. Kim, Teacher Christina에게 감사하다. / 조혜린

가기 전에는 설렘과 걱정을, 가고 나서는 여기가 미국이란 걸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다. 처음에는 음식, 공부, 분위기 등에 적응하지 못했다. 적응을 마치고 본 미국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미국은 우리 생각보다 컸다. 사진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리고 재미있었다. 생각보다 모두가 친절하고, 배려와 미소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뿐이다. 음식도 먹을 만하다. 물론 우리는 한국 음식을 많이 먹었지만 미국 음식만 먹어도 충분히 먹을 만하다. 그러므로 미국은 겁먹을 나라가 아니다. 살면서 한번은 꼭 가봐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된다. 만약 다음에 또 간다면 그 때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김재언

이번 여행은 제게 참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작년과는 분위기가 다른 새로운 여행지를 다니면서 새롭고 소중한 추억들을 쌓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각각의 나라마다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면서 지난 나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날씨가 좋았던 게 기억에 남는데 어디를 가던 화창한 날씨를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보태주신 모든 분들과 우리의 빈자리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멋쟁이에게 고맙습니다. / 이은빈

흔히 하지는 못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번 여행과는 분위기가 확 다른 지역을 여행하며 또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 감사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도 진행하면서도 또 돌아오고 나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배움을 느낄 수 있어 신기하고 큰 무리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지우

저번에 갔던 유럽과는 또 다른 분위기여서 시각적으로 흥미로웠던 여행이었습니다. 많은 예술작품과, 건축물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맑고 푸른 환경 속에서 힐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떼제 공동체 방문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았습니다. 서로 간 믿음을 쌓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여행이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하트) / 진시우

이번 유럽 여행은 저번과는 사뭇 다른 여행이었습니다. 역사책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고 만지고 해보니 마치 꿈속을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며 큰일도 없었고 날씨도 화창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며 감사하며 다녀온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이안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이번 여름 공동체생활은 개인적으로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그루터기사랑방과 미리내사랑방에 소속되어서 2번에 방 공동체생활과 여름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올 한 해 표어인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베드로전서 4장 8-9절)”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계속 던져봤습니다. 나 스스로가 한 해 표어를 잘 지켰는지, 공동체에서 따뜻하게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다양한 질문과 함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방공동체는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는 구조로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일 식사도 자발적으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일이고, 방모임에서 서로 맛있는 음식과 차를 대접하는 것,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지킴이로 봉사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내사랑방은 방별공동체기간 동안 올해 표어를 가지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리내사랑방이 인원이 적어서 설거지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 대신 주일 음식쓰레기가 나오면 퇴비장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 지낸다는 건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연령별사랑방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지역별사랑방과 생활공동체는 공동체 내에 각자의 자리 충실히 지키며 하나님나라를 같이 이루면서 삽니다. 개인적으로 상반기에 잘 대접 못한 것만 생각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대접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아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힘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따뜻한 대접을 많이 실천하기를 다짐해봅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어람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권재만 목사

찬 송 : 382, 449

성 경 : 로마서 1장 16~17절

말 씬 : 복음의 능력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한반도의 전쟁무기 수출>
북조선 열병식을 맞아 러시아가 탄약 수출을 요청했습니다. 남한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글이 적힌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를 공격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고 지원하고 있는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되며 세계에 평화의 전달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공협 한마당잔치를 위한 기도>
각 순서를 맡은 담당자들과 운영진이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씨와 환경, 모이는 사람들을 잘 예비해 주시도록, 이번 모임을 통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휴가기간 다치거나 사고 당하는 지체가 없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여름 공동체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공동식구들은 여름 휴가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하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간 바쁜 일상 때문에 미뤘던 일을 하기도 합니다.

휴가 기간이지만 당직을 정하여 공동체를 비우지 않고 문단속 및 사무실 업무를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쉼을 응원하며 마음을 담아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무탈하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몸은 흩어져 있지만 항상 마음은 무림리 사랑방에 있는 우리 공동식구들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